

## 중국 대도시 이주민의 귀향 인식 분석 - 광둥성 지역을 중심으로 -

유진아

북경사범대-홍콩침회대 연합대학교 응용경제학과

## Analysis of Urban Migrants' Intention to Return - Focusing on Guangdong Province, China -

Jina Yu

Beijing Normal University -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United International college

**ABSTRACT** : While economic incentives have led to migration, the failure to adapt to a new city and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to support families have raised migrants' intention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Using the 2016 China Migrants Dynamic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migrants' intention to return. Migration at a young age, which is associated with lower barriers to the new culture, and intraprovince migration requiring less effort to adapt to the new city, were associated with lower intention to return. Also, migrants with less burden to support a family tend to have a higher intention to return to rural hometowns. Specifically, migrants with children over 18 years old and fewer family members are likely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To revitalize rural economy and reduce the rural-urban disparity, a policy to support migrants with high intention to return will be needed.

**Key words** : Migration, Returning, Adaptation, Family support, China

### I. 서 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수억 명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산업화의 주요 특징이지만 중국은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례적이었으며, 덕분에 빠른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얻을 수 있었다. 2013년 기준, 중국의 이주민구는 1억 6천 5백만 명에 이르며 (Shi, 2016), 노동 이주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약 16~2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ang, 2008).

대표적인 이주 도시인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2016년 상주민구 1천1백만 명 중 선전에 호구<sup>1)</sup>를 둔 주민은 4백만 명으로 나머지 60% 이상의 주민은 외지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uangdong Statistical Yearbook 2017).

하지만 중국에서 이주는 영구 정착이기보다는 단기인 경우가 많은데, Meng (2012)에 의하면 평균 이주 기간은 7년으로, 그 이후에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거나 다른 도시로 재 이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기 이주의 가장 큰 이유로는 호구제가 지적된다. 호구제는 인구통제제로 호구와 상주지를 하나로 연결시킨 제도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식량 배급과 주거지 등이 호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개인을 농민과 도시민으로 구분하고 호구 이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호구제를 도시인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Ahn, 2004). 농촌에 호구를 둔 이주민들은 이주한 도시에서 교육 및 건강보험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Chen et al., 2020) 현지에 호구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Démurger et al., 2009). 호구제로 인한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는 호구제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왔다. 1997년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촌 호구 소지자들에게 소도시로의 호구 이전을 허용하였으며, 2001년에는

Corresponding author : Jina Yu

Tel : +86-0756-3620074

E-mail : jinayu@uic.edu.cn

도시 및 성(省)들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호구 이전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14년에는 중국인들에게 계급처럼 여겨졌던 농민과 도시민의 구분을 없애도록 하였다 (Hao, 2022).

그러나 이러한 호구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이주민들은 영구 정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국 이주 인구 동태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광둥성 응답자 중 27.9%는 호구 이전의 조건을 만족한다 해도 호구를 이주 도시로 옮길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주의 주된 원인이 경제적인 유인임을 감안할 때 이주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유인의 상실 또는 비경제적 가치 추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가족해체 문제, 또는 고향에서의 만족감이 도시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압도하는 경우 이주 도시에서의 영구 정착 대신,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중국 이주 인구 동태 모니터링 조사 데이터 중 광둥성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주 도시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가 이주민들의 귀향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주민들이 이주 도시에서의 적응에 실패한 경우 고향으로의 회귀를 선호하며 (Hao, 2022),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면 이주를 지속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주는 고향에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돌봄 부족 (Kim et al., 2012) 과 이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Fu Keung Wong and Song, 2008) 등 여러 가지 가족 문제를 양산하였는데,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면 이러한 가족 문제를 감당할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이주민들의 이주 도시 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부양 부담을 자녀의 수 (Cao et al. 2015, Fan, Sun and Zheng, 2011)로 측정하여 분석하였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서 완화된 부양 부담이 정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과되어왔다. Zhao (2002)는 자녀의 나이가 귀향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6세이하 또는 12세 이하의 나이인지 여부만 포함하여 경제적 부양 부담 보단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역할에 집중하였다. Demurger and Xu (2011)에서는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이주민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주기간이 길다는 것을 보였으나 도시에서의 이탈 요인 중 하나인 적응의 어려움은 함께 분석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 적응의 어려움은 현지에 친구 또는 친척이 있는지 (Cao et al. 2015, Chen and Liu 2016, Wang 2020), 성간이동인지 (Wang 2019), 현지 방언을 구사할 수 있는지 (Chen and Liu 2016) 등으로 측정되었다.

농촌 출신 이주민들의 귀향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 농촌간 대규모 이동은 빠른 경제성장

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도시 농촌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이주민들의 귀향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본과 기술을 이전시킴으로써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Zhao, 2002). 이주민들의 귀향 동기를 파악하여 귀향 동기가 높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농촌 출신 이주민들이 귀향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를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 완화로 보았다. 적응의 어려움은 두 개의 변수로 측정되었는데 이주 시점의 연령과 성(省) 밖으로의 이주 여부다. 이주 시점의 연령이 어릴수록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 쉽고 타문화에 쉽게 동화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체성이 완전히 형성되어 타문화로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같은 문화와 규범을 공유하는 성(省) 내 이동에 비해 성 밖으로의 이동은 문화적, 규범적 차이를 넓혀 이주민들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한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부담은 이주민 개인이 갖는 효용함수를 가족과의 유대 등 정신적인 만족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소비 향상에 더 가치를 두게 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추구하게 만든다. 따라서 경제적 부양 부담이 높아질수록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기 위해 도시로의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주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양 부담은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므로 가족의 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했으며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모든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는지도 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가설은 아래와 같다.

가설 1. 이주 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향으로의 귀향을 선호할 것이다.

가설 2. 성 밖으로 이주한 이주민들은 성내 이주민에 비해 귀향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가설 3.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귀향 의향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된 이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이주민들에 비해 귀향을 더 선호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데이터는 2016년 중국 이주 인구 동태 모니터링 조사 자료 중 광둥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중국 건강 가족 계획위원회가 매년 각 도시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한

## 중국 대도시 이주민의 귀향 인식 분석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이동인구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표본을 배분한 자료이다.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이 있는 이주민들의 귀향 의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20-60세 이상의 농촌에 호구를 둔 노동 가능 인구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로 데이터를 제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Table 1에 나타나 있다. 6,233명의 응답자 중, 기혼자는 97.99%였으며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2.01%를 차지하였다. 평균적인 가족 수는 3.72명으로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 중 81.45%는 주강삼각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강삼각주 지역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해당 지역은 동관, 포산, 광저우, 선전, 종산, 주하이

를 포함한다 (Wang et al., 202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학교 졸업자로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임을 반영한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29.86세에 이주해 약 5.8년을 이주한 도시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소득 평균은 2만 7천 위안으로(1 위안당 182원의 환율적용 시 약 5백만원), 도시의 1인당 평균 GDP인 11만 위안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가설 검정을 위한 설명 변수 (이주 시의 연령, 성 밖 이동 여부, 가족의 수, 모든 자녀가 18세 이상인지 여부)와 함께 응답자 개인의 특성과 거주 도시의 특징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특성으로는 응답자의 성별, 결혼 여부, 교육정도, 연 소득, 주택 보유 여부, 이주 기간이 포함되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고령 (Newbold and Bell, 2001), 저소득 (Wang & Zhao, 2013), 낮은 교육 수준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igrants

Discrete variables	Sub-category	observations	proportion	
Return Intention	Return	324	5.2	-
	No return	5909	94.8	-
Gender	Male	3087	49.53	-
	Female	3146	50.47	-
Range of movement	Intraprovince	1904	30.55	-
	Interprovince	4329	69.45	-
Marriage before migration	Marriage after migration	1119	18.32	-
	Marriage before migration	4989	81.68	-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No	5554	89.11	-
	Yes	679	10.89	-
Marriage	No	125	2.01	-
	Yes	6108	97.99	-
Having a house	No	3895	62.49	-
	Yes	2338	37.51	-
Pearl River Delta region	No	1156	18.55	-
	Yes	5077	81.45	-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below	731	11.7	-
	Middle school graduates	3516	56.4	-
	High school graduates	1479	23.7	-
	College graduates or above	507	8.1	-
Continuous variables		Observations	Average	Standard deviation
Age		6233	35.67	7.86
Duration of migration		6233	5.80	5.36
Age at the time of migration		6233	29.86	7.91
Number of family members		6233	3.72	0.84
Income per capita per year (1000 yuan)		6233	27.53	22.98
Income per family per year (1000 yuan)		6233	98.70	81.49
City average of GDP per capita (1000 yuan)		6233	113.66	39.43

(Rosenbaum, 1993), 비혼 (Zhao, 2002)이 귀향과 양의 상관관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택보유자는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낮은 상태일 수 있으므로 주택 보유 여부를 변수로 포함했다. 응답자 중 주택보유자는 2,338명으로, 1,576명은 고향에, 742명은 이주 도시에, 154명은 그 외 지역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중복소유 포함). 고향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미 귀향을 결정하고 미리 집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의 위치에 따라 변수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주 기간의 귀향에 대한 영향은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이주 기간이 길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인한 문제들이 커질 수 있으므로 귀향을 선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 기간이 길어진 것은 현지에서의 적응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주 기간이 귀향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더 큰지 파악할 수 있다. 거주 도시의 특징은 일자리가 많고 도시화가 잘된 주강삼각주 지역 여부, 호구에 대한 차별 여부를 결정하는 도시 규모 (인구 1백만 이하, 1-3백만, 3-5백만, 5백만 이상), 도시별 1인당 평균 GDP가 포함되었다.

귀향 의향은 설문조사에서 해당 거주지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응답을 1로, 그 외의 응답을 0으로 두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겠다, 잘 모르겠다의 네 가지로 나뉜다. 연구의 목적이 귀향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응답은 귀향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항의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추정방법은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은 설명 변수들의 선형함수를 인덱스화하고, 누적정규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인덱스와 종속변수의 확률함수를 연결한다. 로짓 모형은 누적정규분포 대신 로짓 함수를 사용한다 (Wooldridge, 2010).

#### IV. 연구결과

Table 2는 이주 도시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 완화가 귀향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주 시 연령과 이동범위로 측정된 이주 도시 적응의 어려움은 귀향 의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주 시의 연령이 1세 높아지면 귀향을 선택할 확률이 1.2%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1)). 나이가 어릴수

록 정체성 확립이 강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쉽지만 이미 고향에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한 이주민들은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이동범위가 성내인 경우에 비해 성 밖으로의 이동은 귀향 의향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성 내에서는 공유하는 문화와 규범 차이가 작지만, 성 바깥으로의 이동은 적응에 어려움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주 기간은 그 기간이 길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높여 귀향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한계효과는 이주 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귀향 의향이 평균적으로 1.5%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민들의 이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현지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므로 귀향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은 모든 자녀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었던 지와 가족의 수로 측정되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귀향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낮아지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했던 이주를 유지할 이유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수와 귀향 의향의 음의 상관관계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귀향보다는 이주 도시에서 높은 경제적 소득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귀향 의향이 적다는 것 또한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귀향보다는 이주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보유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여 귀향을 선호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교적 생활환경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주강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귀향에 대한 선호도 타지역 거주자의 선호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았다. 주강삼각주 지역의 평균 소득이 높을지라도 농촌 출신 이주민들의 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해당 지역이 주는 경제적인 유인이 특별히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도시의 편의성 등도 의미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호구제에 대한 차별적 시스템을 갖는 도시규모 역시 귀향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호구제로 인한 차별이 해당 도시로의 정착을 선호하게 한다거나 고향으로의 귀향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의 2-7열은 대체 또는 추가 변수를 사용했을 때의 결과이다. 1인당 연 소득 대신 가족 연 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경우 (Table 2 (2)), 1인당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귀향 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열은 도시규모 대신 도시인구를 사용한 결과를

중국 대도시 이주민의 귀향 인식 분석

Table 2. Probit regression of return intention

Variables	(1)	(2)	(3)	(4)	(5)	(6)	(7)
Age at the time of migration	0.012** (0.005)	0.011** (0.005)	0.011** (0.005)	-	0.012** (0.005)	0.015*** (0.005)	0.009* (0.005)
Range of movement	0.506*** (0.071)	0.506*** (0.071)	0.508*** (0.071)	0.506*** (0.071)	0.498*** (0.070)	0.399*** (0.060)	0.398*** (0.060)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0.229** (0.096)	0.227** (0.096)	0.232** (0.099)	0.229** (0.096)	0.199** (0.088)	-	-
Number of family members	-0.118*** (0.034)	-0.065** (0.033)	-0.116*** (0.034)	-0.118*** (0.034)	-0.113*** (0.037)	-0.102*** (0.030)	-0.089*** (0.027)
Duration of migration	-0.015*** (0.005)	-0.015*** (0.005)	-0.015*** (0.005)	-0.027*** (0.005)	-0.007 (0.008)	-0.011* (0.006)	-0.016** (0.007)
Gender	0.033 (0.039)	0.033 (0.039)	0.031 (0.040)	0.033 (0.039)	0.035 (0.046)	0.087** (0.034)	0.072** (0.034)
Marriage	-0.299 (0.188)	-0.287 (0.190)	-0.313* (0.187)	-0.299 (0.188)	-0.140 (0.236)	-0.243* (0.125)	-0.229* (0.126)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below	0.047 (0.126)	0.045 (0.126)	0.061 (0.128)	0.047 (0.126)	-0.012 (0.141)	0.080 (0.117)	0.050 (0.116)
Middle school graduates	0.026 (0.089)	0.026 (0.086)	0.032 (0.093)	0.026 (0.089)	0.001 (0.119)	0.049 (0.048)	0.043 (0.047)
High school graduates	-0.058 (0.110)	-0.059 (0.106)	-0.053 (0.111)	-0.058 (0.110)	-0.039 (0.130)	-0.071 (0.065)	-0.077 (0.065)
Income per capita per year (1000RMB)	-0.008*** (0.002)	-	-0.008*** (0.002)	-0.008*** (0.002)	-0.007*** (0.002)	-0.001 (0.002)	-0.001 (0.002)
Having a house	0.051 (0.055)	0.055 (0.057)	0.051 (0.054)	0.051 (0.055)	0.080 (0.060)	0.072 (0.046)	0.071 (0.046)
Pearl River Delta region	-0.044 (0.241)	-0.044 (0.239)	-0.066 (0.229)	-0.044 (0.241)	-0.071 (0.229)	-0.003 (0.209)	-0.004 (0.209)
City level	-0.039 (0.119)	-0.039 (0.119)	-	-0.039 (0.119)	-0.044 (0.114)	-0.045 (0.099)	-0.047 (0.099)
City average of GDP per capita (1000RMB)	-0.000 (0.003)	-0.000 (0.003)	-0.001 (0.003)	-0.000 (0.003)	-0.000 (0.003)	-0.001 (0.002)	-0.001 (0.002)
Income per family per year (1000RMB)	-	-0.002*** (0.001)	-	-	-	-	-
City population	-	-	0.014 (0.015)	-	-	-	-
Age	-	-	-	0.012** (0.005)	-	-	-
Movement with spouse	-	-	-	-	-0.152** (0.061)	-	-
Having a child	-	-	-	-	-	0.105 (0.108)	-
Interaction (Having a child x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	-	-	-	-	-	0.351** (0.150)
1 if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0 otherwise	-	-	-	-	-	-	0.088 (0.107)
1 if having a child under 18 years old, 0 otherwise	-	-	-	-	-	-	-
Constant	-1.249*** (0.465)	-1.437*** (0.478)	-1.361*** (0.305)	-1.249*** (0.465)	-1.327*** (0.479)	-1.626*** (0.355)	-1.468*** (0.344)
Observations	6,233	6,233	6,233	6,233	5,067	8,282	8,282

Average marginal effects and standard errors (parentheses) are reported. \*\*\* p<0.01, \*\* p<0.05, \* p<0.1

나타낸다. 도시규모는 인구 수에 따라 총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호구제 뿐 아니라 각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갖는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연속변수인 도시 인구 수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도시 규모 변수와 마찬가지로 귀향 의향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4월은 응답자의 연령이 귀향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주시의 연령과 설문에 응답했던 2016년의 연령은 높은 다중 공선성을 가져, 이주시의 연령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주시의 연령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이주 전에 결혼한 이주민 중에서 배우자와 함께 이동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귀향에 대한 선호가 높은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배우자와 함께 이동한 이주민들은 귀향의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을 갖는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빨리 달성할 수 있지만(이 경우 귀향을 선호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착을 염두에 두고 배우자와 함께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주어진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아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Table 2의 6월과 7월은 자녀가 없는 이주민도 분석에 포함했을 때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귀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추가된 응답자는 결혼을 했거나 동거 중이지만 자녀가 없는 이주민들(347명)과 미혼자(1,702명)를 포함한다. 더미 변수로 설정된 자녀 변수는 귀향 의향에(6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가족의 수가 이미 변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녀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 비해 자녀에 대한 부양 부담이 더 크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가 없는 응답자를 포함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 지의 영향은 7월에 제시되어있다. 분석을 위해 자녀보유 여부와 자녀가 18세 이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간의 인터랙션 텀을 만들었다. 첫번째 변수는 모든 자녀가 성인이면 1의 값을 가지고 자녀가 없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두번째 변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자녀가 없는 경우, 성인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랙션 텀이 0의 값을 갖게 되므로 누락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귀향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모든 자녀가 성인인 경우 귀향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간 계수의 차이는 자녀의 성년여부가 귀향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는데, 별도의 분석 결과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text{Chi}^2(1) = 5.45, \text{Prob} > \text{Chi}^2 = 0.0195$ ). 6월의 결과와 종합해보면, 단순히 자녀가 있는지 여부는 귀향 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모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주 부모는 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은 자녀가 있는 이주민으로 데이터를 한정했을 때 귀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이주민들도 포함한 분석에서는 귀향 의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과 7월의 결과는 여성이 귀향을 더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여부도 확장된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혼자의 귀향에 대한 선호가 더 낮은 것을 의미한다. 기혼자가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을 더 크게 가져 도시에 머무는 것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3은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방향과 통계적 유의성이 프로빗 모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응답자의 응답을 이주지역에서 장기 거주할 의사가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하겠다, 잘 모르겠다의 네 가지로 두고 multinomial logit 모델로 분석한 결과이다(Yu, Zhu and Chen, 2022).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짧은 이주기간, 이주시의 높은 연령, 성간이동이 귀향 의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적거나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도 귀향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기간, 이동범위, 자녀의 18세 이상 여부, 가족 수가 도시에 대한 정착 선호에 미치는 영향(2월)은 귀향

Table 3. Logit regression of return intention

Variables	(1)	(2)	(3)	(4)	(5)	(6)	(7)
Age at the time of migration	0.012** (0.005)	0.011** (0.005)	0.011** (0.005)	-	0.012** (0.005)	0.015*** (0.005)	0.009* (0.005)
Range of movement	0.506*** (0.071)	0.506*** (0.071)	0.508*** (0.071)	0.506*** (0.071)	0.498*** (0.070)	0.399*** (0.060)	0.398*** (0.060)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0.229** (0.096)	0.227** (0.096)	0.232** (0.099)	0.229** (0.096)	0.199** (0.088)	-	-

중국 대도시 이주민의 귀향 인식 분석

Variables	(1)	(2)	(3)	(4)	(5)	(6)	(7)
Number of family members	-0.118*** (0.034)	-0.065** (0.033)	-0.116*** (0.034)	-0.118*** (0.034)	-0.113*** (0.037)	-0.102*** (0.030)	-0.089*** (0.027)
Duration of migration	-0.015*** (0.005)	-0.015*** (0.005)	-0.015*** (0.005)	-0.027*** (0.005)	-0.007 (0.008)	-0.011* (0.006)	-0.016** (0.007)
Gender	0.033 (0.039)	0.033 (0.039)	0.031 (0.040)	0.033 (0.039)	0.035 (0.046)	0.087** (0.034)	0.072** (0.034)
Marriage	-0.299 (0.188)	-0.287 (0.190)	-0.313* (0.187)	-0.299 (0.188)	-0.140 (0.236)	-0.243* (0.125)	-0.229* (0.126)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below	0.047 (0.126)	0.045 (0.126)	0.061 (0.128)	0.047 (0.126)	-0.012 (0.141)	0.080 (0.117)	0.050 (0.116)
Middle school graduates	0.026 (0.089)	0.026 (0.086)	0.032 (0.093)	0.026 (0.089)	0.001 (0.119)	0.049 (0.048)	0.043 (0.047)
High school graduates	-0.058 (0.110)	-0.059 (0.106)	-0.053 (0.111)	-0.058 (0.110)	-0.039 (0.130)	-0.071 (0.065)	-0.077 (0.065)
Income per capita per year (1000RMB)	-0.008*** (0.002)	-	-0.008*** (0.002)	-0.008*** (0.002)	-0.007*** (0.002)	-0.001 (0.002)	-0.001 (0.002)
Having a house	0.051 (0.055)	0.055 (0.057)	0.051 (0.054)	0.051 (0.055)	0.080 (0.060)	0.072 (0.046)	0.071 (0.046)
Pearl River Delta region	-0.044 (0.241)	-0.044 (0.239)	-0.066 (0.229)	-0.044 (0.241)	-0.071 (0.229)	-0.003 (0.209)	-0.004 (0.209)
City level	-0.039 (0.119)	-0.039 (0.119)	-	-0.039 (0.119)	-0.044 (0.114)	-0.045 (0.099)	-0.047 (0.099)
City average of GDP per capita (1000RMB)	-0.000 (0.003)	-0.000 (0.003)	-0.001 (0.003)	-0.000 (0.003)	-0.000 (0.003)	-0.001 (0.002)	-0.001 (0.002)
Income per family per year (1000RMB)	-	-0.002*** (0.001)	-	-	-	-	-
City population	-	-	0.014 (0.015)	-	-	-	-
Age	-	-	-	0.012** (0.005)	-	-	-
Movement with spouse	-	-	-	-	-0.152** (0.061)	-	-
Having a child	-	-	-	-	-	0.105 (0.108)	-
Interaction (Having a child x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	-	-	-	-	-	0.351** (0.150)
1 if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0 otherwise	-	-	-	-	-	-	0.088 (0.107)
1 if having a child under 18 years old, 0 otherwise	-	-	-	-	-	-	0.088 (0.107)
Constant	-1.249*** (0.465)	-1.437*** (0.478)	-1.361*** (0.305)	-1.249*** (0.465)	-1.327*** (0.479)	-1.626*** (0.355)	-1.468*** (0.344)
Observations	6,233	6,233	6,233	6,233	5,067	8,282	8,282

Average marginal effects and standard errors (parentheses) are reported. \*\*\* p<0.01, \*\* p<0.05, \* p<0.1

Table 4. Multinomial logit regression of return intention

Variables	Return	settlement	re-migration	Undecided
Age at the time of migration	0.0011** (0.0005)	0.0026*** (0.0008)	-0.0005 (0.0004)	-0.0033*** (0.001)
Range of movement	0.0528*** (0.011)	-0.1525*** (0.0192)	0.0053 (0.005)	0.0943*** (0.0141)
All children over 18 years old	0.0223** (0.0095)	-0.0903** (0.0364)	-0.0003 (0.0079)	0.0683* (0.0392)
Number of family members	-0.0117*** (0.0039)	0.0354*** (0.0058)	-0.0048 (0.004)	-0.0189*** (0.0056)
Duration of migration	-0.0013** (0.0006)	0.0183*** (0.0015)	-0.0019*** (0.0004)	-0.0151*** (0.0015)
Gender	0.0026 (0.0039)	-0.0017 (0.008)	-0.0104*** (0.0035)	0.0094 (0.0093)
Marriage	-0.0278* (0.0162)	-0.0245 (0.0316)	0.0145 (0.0144)	0.0377* (0.0203)
Elementary school graduates or below	0.002 (0.0125)	-0.2038*** (0.0384)	0.017* (0.0095)	0.1848*** (0.0311)
Middle school graduates	-0.0012 (0.0094)	-0.1675*** (0.0153)	0.0184* (0.0096)	0.1503*** (0.012)
High school graduates	-0.0092 (0.0116)	-0.0942*** (0.0205)	0.0169** (0.0085)	0.0865*** (0.021)
Income per capita per year (1000RMB)	-0.0008*** (0.0002)	0.0037*** (0.0007)	0.0001 (0.0002)	-0.0029*** (0.0006)
Having a house	0.007 (0.006)	0.0708*** (0.0141)	0.0034 (0.0065)	-0.0812*** (0.0148)
Pearl River Delta region	-0.0035 (0.0248)	0.0738* (0.0414)	-0.004 (0.0157)	-0.0662** (0.0326)
City level	-0.0047 (0.0115)	-0.0855*** (0.0198)	0.0015 (0.0057)	0.0887*** (0.0156)
City average of GDP per capita (1000RMB)	0 (0.0003)	0.0001 (0.0004)	0 (0.0002)	-0.0001 (0.0002)

Average marginal effects and standard errors (parentheses) are reported. \*\*\* p<0.01, \*\* p<0.05, \* p<0.1

의향에 미치는 영향 (1열)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주 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귀향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정착을 선호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결정을 미루거나 재이주를 선택하는 것보다 귀향 내지는 정착에 대한 선호를 확고히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 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확고하게 성립된 가치관이 적응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보다는 그 가치관이 귀향 내지는 정착에 대한 확고한 선호를 확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교육 수준, 주택 보유 여부, 주강삼각주 지역, 도시규모 변수들은 귀향 의향에 대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주 도시로의 정착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는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왔다. 그러나 경제발전 이면에는 가족해체, 적응 실패, 농촌 인구 감소 등의 문제들도 발생해왔다. 또한, 도시에서의 고용기회 감소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이주민들이 대도시에서의 정착을 포기하고 지방 소도시 또는 고향으로 재이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Tadevosyan, Chen, and Liu, 2020). 중국정부에서도 귀향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주민의 창업 장려, 지역 취업기회 상승 등을 포함하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며, 다음 해에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창업 보조금 확대, 창업 교육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 (Tadevosyan, Chen, and Liu, 2020).

본 연구에서는 중국 광둥성 이주민들의 귀향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귀향의 동기를 확인하고, 귀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함의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통해 개인의 이주 경험, 특히 이주 도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이 귀향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랜 기간 이주 도시에 머무른 사람일 수록, 같은 성내에서 이주한 사람일 수록 적응의 어려움이 적으므로 귀향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주 기간이 짧고 먼 지역으로 이주했던 이주민들을 타깃으로 세금감면 등의 귀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책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직업 훈련 제공 (Employment Policies Report - China, 2011) 등으로 농촌에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수록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 부담이 낮아져 귀향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부양 부담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이주민들이 귀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관련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육아 및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의 한계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밀어내는 요소 (push factors)를 충분히 변수화 하지 못하였다. 밀어내는 요소로는 적응의 어려움, 낮은 소득, 호구제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접근의 어려움, 가족 해체 등이 있다 (Tadevosyan, Chen, and Liu, 2020).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재결합, 고향에서의 일자리 기회 등 고향으로 끌어당기는 요소 (pull factors) 역시 충분히 변수화 하지 못하였다.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부양 부담은 변수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측정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는 설문 연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된 데이터는 한 해의 응답만을 포함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귀향 의향이 여러 가지 정책 변수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1) 중국의 인구등록제

## References

1. Ahn J. S., 2004,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 of the Chinese household registration(hukou) system.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vol.22, no.2, pp. 33-53
2. Chen, H., Wang, X., Liu, Y., & Liu, Y., 2020, Migrants' choice of household split or reunion in China's urbanisation process: The effect of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Cities*, 102, 102669.
3. Démurger, S., Gurgand, M., Li, S., & Yue, X., 2009, Migrants as second-class workers in urban China? A decomposition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7(4), 610-628.
4. Démurger, S., & Xu, H., 2011, Return migrants: The rise of new entrepreneurs in rural China. *World Development*, 39(10), 1847-1861.
5. Employment Policies Report - Promoting decent employment for rural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6. Fan, C. C., Sun, M., & Zheng, S., 2011, Migration and split households: A comparison of sole, couple, and family migrants in Beijing, China. *Environment and Planning A*, 43(9), 2164-2185.
7. Fu Keung Wong, D., & Song, H. X., 2008, The resilience of migrant workers in Shanghai China: the roles of migration stress and meaning of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4(2), 131-143.
8. Hao, L., 2022, Impact of relaxing the hukou constraints on return migration intentions: Evidence from China.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41(2), 583-607.
9. Kim Y.L., Choi I.H., Sun B.Y., Kang S.H., Kim H.Y., Lee J.H., 2012, Social change and family (I) in China - Focused on urban migrating peasant and familie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2-33-03 12-45
10. Meng, X., 2012, Labor market outcomes and reforms in Chin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4), 75-102.
11. Newbold, K. B., & Bell, M., 2001, Return and onwards migration in Canada and Australia: Evidence from fixed interval dat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5(4), 1157-1184.
12. Rosenbaum, H., 1993, Selectivity among various types of inter-provincial migrants, Canada 1976-1981.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20(1), 85-106.

13. Shi, L., 2016, R efficient changes in income inequality in China. World Social Science Report, 84.
  14. Tadevosyan, G., Chen, S., & Liu, R., 2020, Returning migrant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allenges and perspectives —Evidence from Chongqing, Asian Development Bank Asia Working Paper series. No.33
  15. Wang, D., 2008, Rural-urban migration and policy responses in China: challenges and options,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6. Wang, Y., Wang, Z., Zhou, C., Liu, Y., & Liu, S., 2020, On the settlement of the floating population in the Pearl River Delta: Understanding the factors of permanent settlement intention versus housing purchase actions. Sustainability, 12(22), 9771.
  17. Wang, Z., & Zhao, Z., 2013, The dynamic choice of migrant workers: Going-out, returning, and re-migrating. Management World, 1, 78-88.
  18. Wooldridge, J. M., 2010,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MA: MIT Press.
  19. Yu, J., Zhu, Y., & Chen, R., 2022, Does a child's school-age affect migrants' settlement intention? Future Growth Studies 8, 81-100.
  20. Zhao, Y., 2002,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turn migration: recent evidence from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0(2), 376-394.
- 
- Received 5 October 2022
  - First Revised 29 November 2022
  - Finally Revised 13 December 2022
  - Accepted 18 January 2023